

광주 불교계 5.18 추모 물결 잇달아

추모행사·음악회·위령제 등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불교계 추모행사가 개최됐다. 광주전남불교 NGO연대(대표 행법)는 5월 27일 조선대 지광 김동수 열사 추모비 앞에서 '5.18민중항쟁 제35주년 추모법회'를 열고, 5.18에 희생된 영령들을 위한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오후 5시에 시작된 법회는 '내가 날씨에 따라 변할 사람 같소!'라는 주제로 헌향, 헌화, 불교의례, 묵념, 님을 위한 행진곡, 지광 김동수 열사 약력소개, 추모사, 추모노래, 유족 인사말, 법문, 시낭송, 경기명상 등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행법 스님, 효진 스님(광덕사 주지), 이재은 대불련 회장, 오원재 지광김동수열사 기념사업회 회장, 박태동 대불련 총동문회 수석부회장, 김희용 목사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지광 김동수 열사는 대불련 전남지부장으로 활동중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에 의해 전남도청에서 사망했다. 특히 김동수 열사는 1980년 당시 광주지역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 집행부위원장과 조선대 학원자율화추진위원회, 민주투쟁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었다.

중심사 무등산 풍경소리(대표 연광)도 지



중심사 무등산 풍경소리(대표 연광)도 지난 5월 25일 경내에서 부처님오신날 기념 및 5.18민중항쟁 기념 음악회를 개최했다.

대불련 전남지부장 김동수 열사 추모 무등산 풍경소리 종교인 음악회 개최 광주인드라마 인권체험·강연회도

난 5월 25일 경내에서 부처님오신날 기념 및 5.18민중항쟁기념 음악회를 개최했다. '세상을 향해 부르는 노래'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음악회는 노래손님 정태춘, 박은옥, 쌍촌동성당 마리아성가대, 중심사 합창단의 공연과 4대종단 이정택 교무(원불

교광주전남교구장, 윤연길 신부(쌍촌동성당 주임), 김성룡 목사(고백교회 담임), 연광 스님 등 성직자들이 이야기 손님으로 참여해 2시간 동안 진행됐다.

129회를 맞는 무등산 풍경소리는 '생명과 환경을 생각하는 종교인 모임'이 참여하는 종교간 소통 모임으로, 매년 성당, 원불교, 사회적 실천이 필요한 곳에서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불교단체에서 5.18관련 추모행사를 진행했다. 광주전남불교영산회(회장 월인)는 지난 5월 18일 국립5.18묘역



5.18추모법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광주전남 불교NGO연대 대표 행법스님

위령당 앞에서 '5.18민주영령 천도 및 위령제'를 봉행했다. 광주불교연합회가 후원한 이날 행사는 20여명의 영산제 의식스님들이 참여해 5월 영령 천도제를 봉행했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도 5월 17일 망월동 구묘역에서 '꽃진자리 피어나는 희망'이란 주제로 추모음악회를 열고 주먹밥 등을 나누주는 행사를 개최했다. 광주전남인드라마광명공동체(대표 월목)도 5월 16일 어린이청소년 5.18인권체험과 5월 17일 5.18강연회를 개최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이웃과 함께 나누는 봉축 자비나눔 '훈훈'

원조사 장학지원, 자비암 소외이웃 돕기도

부산 반송 원조사(주지 정관)는 불기 2559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꿈나무가 꾸기명정장학재단 장학금 지원 및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5월 25일 원소사는 봉축법요식에 이어 대학생 2명(각100만원), 동부산대 불교학 생회 소속 4명(각 30만원), 고등학생 8명(각 50만원)에게 총 72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외 소외된 이웃을 위한 후원금도 전달됐다. 반송2동새마을금고 독서골든벨 지원금 100만 원, 반송지역 초등부 방과 후 공부방인 든솔학교 운영비 지원금 50만 원, 조순·편부 가정 여성위생대 지원금 420만 원, 북한어린이들이 후원금 120

만 원 등 총 69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엔 지급된 장학금과 후원금 총 금액은 1410만 원에 이른다.

부산 동래 자비암(주지 자관)에서도 봉축을 맞아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해 훈훈함을 전했다.

자비암은 편부모가정 학생을 5명(각 30만원) 총 150만원, 쌀 10kg 60포대를 부산 명륜동 및 북천동 일대에 전달했다.

매년마다 봉축을 맞아 자비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자관 스님은 "지역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자비나눔 실천으로 봉축을 축하하는 것은 부처님의 뜻을 실천하는 뜻 깊은 일이라 생각한다"며 취지를 전했다.

하성미 기자



원조사서 열린 '꿈나무가꾸기명정장학재단 장학금 지원 및 후원금 전달식' 장면.

지역 봉축 법요식 프로그램 다채

부산불교실업인회 범종불사 회향 대구 팔공산 성연사 육법공양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각 지역에서는 다양한 봉축 법요식이 열렸다.

부산불교실업인회(회장 김윤환)는 봉축을 맞아 범종 불사를 회향하고 그 공덕을 회향 발원하는 특별한 봉축법요식을 봉행했다. 부산불교실업인회는 5월 21일 부산 불교실업인회 회관 묘광선원에서 회원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봉축법요식 및 범종불사회향식을 열었다.

법요식은 삼귀의, 발원문 낭독, 범종 봉안 및 타종식, 신입회원 입회선서, 관육의

식 등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범종불사에 관한 공덕을 돌아보는 장제진 교수(동명대 불교문화콘텐츠학과)의 특강도 이어졌다. 장 교수는 범종의 유래를 설명하며 범종 불사의 공덕과 기능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대일불교조계종불 팔공산 성연사(선원장 구룡)도 5월 25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법요식을 가졌다. 특히, 신도회(회장 한승진)에서는 '육법공양'을 마련 1백여 불자들이 함께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더했다. 선원장 구룡 스님은 "육법공양이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하는 것이며, 중생을 이롭게 하고 구제하려는 보살의 뜻을 펴는 것"이라고 법문했다.

하성미 기자·손문철대구지사장



부산불교실업인회는 묘광선원에서 봉축법요식 및 범종불사회향식을 열었다.

"일념으로 수행정진 실천이 중요"

익산 정각사, 도영 스님 초청법회

익산 정각사(주지 일행)가 5월 18일 前 포교원장 도영 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매일 전국의 선지식을 초청해 법문을 청해 듣는 33선지식 법회를 갖는 정각사는 5월 법사로 前 포교원장 도영 스님을 초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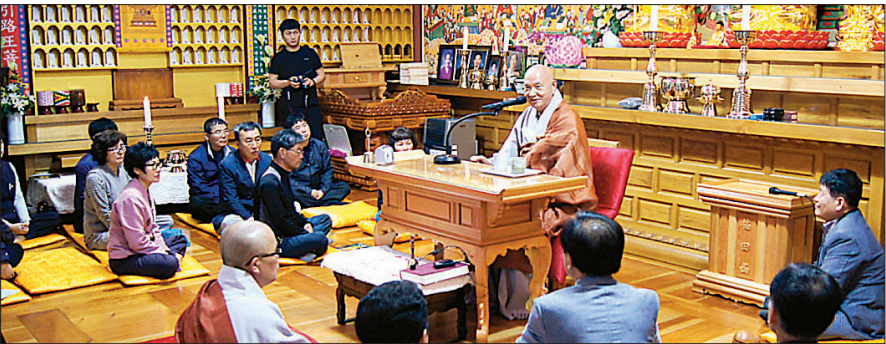
정각사 주지 일행 스님은 "시골의 작은 절에서 선지식을 어렵게 모시고 법회를 열어가고 있다"며 "지역의 어른이시며 큰 포교원력을 가지고 있는 도영 스님의 법문을 통해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전법과 기도정진에 노력하는 불자가 되어 달라"고 말했다.

도영 스님은 법문을 통해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일념으로 정진해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신의 원하는 바를 얻으려면 무엇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 스님은 "올해의 사자성어인 화엄경의 존해파경을 주로 법문 주제로 삼고 있다"며 "바다도 존중하면 파도도 평온해진다든 경구를 명심하고 보살의 삶을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익산 정각사는 주변의 토지를 매입해 농사를 지으며 부족한 사찰 재정을 해결하고 있으며, 신심이 약한 지역 불자들을 위해 매일 선지식 초청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익산 정각사는 前포교원장 도영 스님 초청법회 33선지식 초청법회를 가졌다.

대구 운불련 불자회 경로잔치 개최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 대구지역회(회장 성승길)가 5월 23일 부처님 오신날 기념 '운불련 경로잔치'를 천태종 대구 동대사 앞 잔디밭에서 개최했다.

이날 경로잔치에는 천태종 동대사 주지 도산 스님, 대성사 주지 화산 스님, 주호영·강은희 국회의원, 정순천 대구시의회 부의장, 대구경찰청 장호식 법무회장, 동대사 신도회장 임은호, 대성사 조대현 총무위원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은 행사에 앞서 50여 명의 운불련 회원들이 각 구청 노인복지관에서 200여 어르신들을 택시로 모셔와 훈훈함



을 더했다.

성승길 회장은 "운불련 택시는 달리는 법당 '움직이는 표교사'다. 어르신들을 내 부모님같이 모시자는 생각에서 올해 경로잔치를 열게 되었다"며 취지를 전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홍법사 '제 25회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제'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가 '제25회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제'를 봉행한다.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며 유주무주 고혼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거행하는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제는 6월 6일 오전 10시 홍법사 잔디마당에서 진행된다. 행사는 불공 및 육법공양, 천도제, 홍법대상 시상으로 이어진다. 특히 이 자리에는 한국 전쟁 당시 미국에서 파병된 참

전용사 가족들도 초청한다.

홍법바라밀제에 이어 홍법사는 '제5회 호국의 숭결대회'도 진행한다. 낮12시부터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청소년의 호국 안보정신을 고취시키고 애국 정신을 되살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참가부문은 그리기, 글짓기, 서예이며 참가대상은 초·중·고 모든 학생 모두 가능하다. (051)508-3471 하성미 기자

지구촌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알고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 온 35년의 세월들



세계 곳곳에서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알고 국내를 비롯하여 지구촌 후진국 빈민촌의 어둠과 고통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는 불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군소종단의 통합을 염원하며 아픔을 함께 하고자 하는 한국 군소종단들의 모임체



땅에 떨어진 불교의 위상 군소종단들이 하나로 뭉쳐 불교를 바로 세우는 밑거름이 됩시다.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종단 지도자 여러분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여기 저기 기웃거리다가 자신의 마음에 뜻이 같지 않으면 순식간에 등돌리고 무리져서 이리 가고 저리 가는 부실종단 지도자들은 더 이상 먹물 옷을 욱되게 해서는 안됩니다. 부실종단이 난립하니 승려의 자질과 역량이 사회와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수행자의 출현이 아쉽다는 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아상과 독선, 옹고집 명예와 권력야욕 벗어 던져 버리고 **이제는 초발심으로 돌아가 종단은 다르나 모임에는 통합되고 단결된 종단들이 되어 불교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역할로 각자의 본분을 충실히 다져야 합니다.** 적으면 적은대로 불교에 누를 끼치는 종단에서 벗어나 불교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주역이 됩시다. 가입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단 정식 법인 등록된 종단 및 단체가 가입 자격이 있습니다.

대표전화 02)733-5665, 733-5670.
팩 스 02)733-5615, H.P : 011-229-6061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승려교육 통일. 품수통일 불교행사통일 종단활동 지원 가사 통일
단일금강계단 설치하여 합동 품수식 및 합동 수계법회. 단일 합동 고시위원회 활성화
사단법인 : 세계 불교 법왕청. 종교법인 :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大韓佛敎108宗正聯合會, 大韓佛敎 宗團 總聯合協議會, 韓國佛敎 高僧長老團,
世界佛敎 考試委員會, 大韓佛敎 大宗師 聯合協議會, 韓國佛敎 元老長老團, 韓國佛敎

나라사랑 聯合協議會, 韓國佛敎 宗團 人權委員會, 국제부다보사단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그늘진 곳에 같이 웃고 같이 울며 고통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하는 봉사단 불자를 모집한다.

불자라면 남,녀 누구나 환영합니다.